

numbers 제 83호



주요 내용

2021. 02.05

- 이번 주 주제 : [기독교 청년 사회 인식]
- 기독교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최근 언론보도 통계:
[내가 만약에... 가정으로 엇본 국민 생각]
- 내가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기독교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불안하니까 청년이다, 막막하니까 청년이다, 흔들리니까 청년이다, 외로우니까 청년이다, 두근거리니까 청년이다, 그러니까 청년이다(〈아프니까 청년이다〉, 김난도).

김난도 교수는 청년의 특징을 ‘불안’으로 특징지었다. 청년기는 사회 진입을 준비하거나 막 진입한 시대라서 모든 게 막막하고 불안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펼쳐질 세계가 다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픔’을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도 않고 녹록하지도 않다. 청년 세대의 불안감은 앞날의 모호함이 아니라 현실의 열악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다. 최근 기독교 청년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기독교 청년의 4명 중 1명 이상(27%)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한국 교회에 충격을 주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에서는 기독교 청년(만19~39세)들의 사회 인식과 신앙 의식에 대한 분석을 두 차례에 걸쳐 심기로 했다. 이번주 83호는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을 다룬다. 이 분석을 통해 기독교 청년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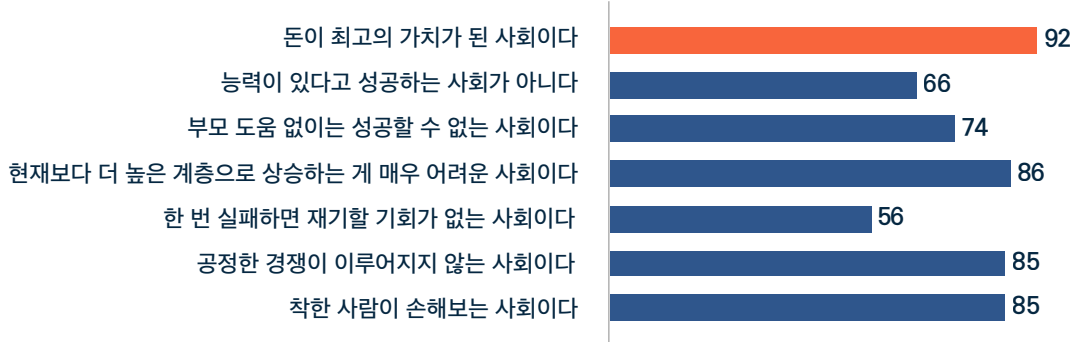
1



기독교 청년(19~39세), ‘돈이 최고의 가치다’ 92%

- 기독교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야’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92%). 이 정도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게 아니고 ‘육망’ 실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돈’이 성공의 척도인 한국 사회는 ‘능력이 있다고 성공할 수 없는’(66%) 사회이고, 그래서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74%), 즉 세습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이 어려우며’(86%),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도 없는 사회’(56%)라고 인식하고 있다.
- 이런 사회에서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어서 온갖 ‘불공정한 경쟁’(85%)이 판을 치며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85%)라고 인식한다.

[그림] 기독교 청년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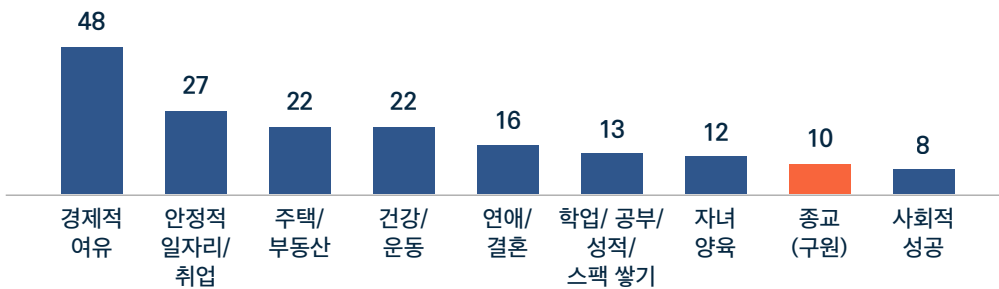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최고의 관심사, ‘경제적 여유’ 48%

-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 기독교 청년들의 개인적 관심사는 무엇일까? 당연히 ‘경제적 여유’(48%)이다.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취업’(27%), ‘주택/부동산’(22%)에 관심이 있다.
- 기독교 청년의 관심사 가운데 ‘종교’가 뒷 순위(10%, 8위)로 밀린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아픈 현실이다.

[그림] 요즘 관심사(1+2순위, 상위 9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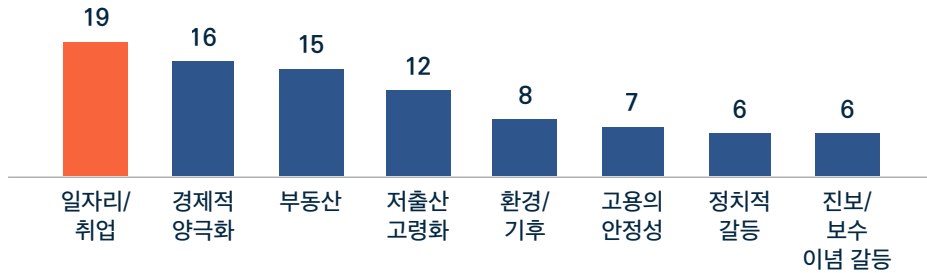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일자리가 문제야!’ 1위

- 한국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 가운데, 청년세대가 보기에는 ‘일자리 취업 문제’(19%)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7%)도 주요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년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
- 부동산 문제가 주요 문제로 꼽힌 것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내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상위 8위)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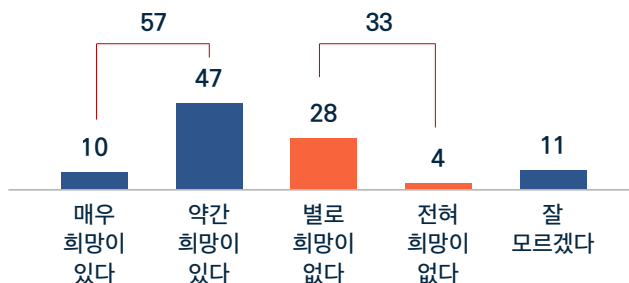
2



한국 사회, ‘미래에 희망 없어!’ 33%

-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 절반이 넘는 57%가 ‘희망이 있다’고 응답했고, 33%는 ‘희망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길이 창창한 기독 청년 가운데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한 청년이 절반이 넘었지만, 3명 가운데 1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독 청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3



우리 세대는 ‘불행한 세대이다’ 69%

- 그러면 청년들은 자기 세대를 어떻게 인식할까? 청년들은 자기 세대가 불행한 세대라고 인식한다(69%).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28%), 능력도 소용없고 공정한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스스로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삶보다 미래의 삶을 더 불행하게 본다는 것이다(78%).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가 희망적이면 용기를 갖고 살텐데 미래를 더 암울하게 본다는 점에서 청년 세대가 처한 적박한 현실이 엿보인다.
-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67%)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각자도생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수치이다.

[그림] 기독 청년의 현실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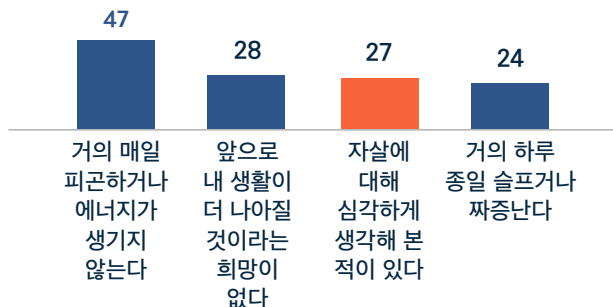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기독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기독 청년들 생활 가운데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47%) 예수를 믿지만 기독 청년들의 삶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 게다가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무기력을 넘어서 심리적 우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는 응답이 24%이며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는 응답은 28%였고, 심지어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응답도 27%로 4명 중 1명 이상이었다.
- 코로나19 때문에 더해진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를 둘러싼 현실의 벽들이 기독 청년들을 심리적 무기력 상태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림] 평소 생활에서 심리 및 감정 상태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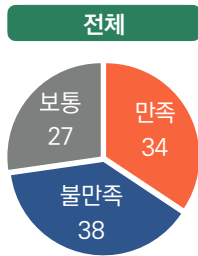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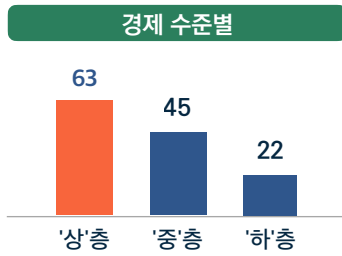
기독교 청년,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높다!

- 기독교 청년 가운데 자기의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34%, '불만족한다' 비율이 38%여서 기독교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생활에 대해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본인 경제 수준으로 보면, '상'층이 63%, '중'층 45%, '하'층 22%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 신앙 단계로 보면,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아져서 기독교 입문층인 24%가 만족하는 데 비해 그리스도 중심층은 65%로서 큰 격차를 보였다. 현실의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여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기독교 청년들이 있다는 데서 신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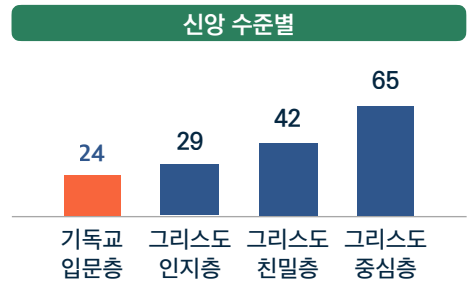
[그림] 생활 만족도***



[그림] 생활 만족도('만족한다' 비율)



(%)



*자료 출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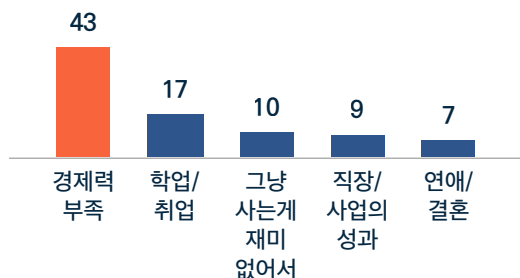
** Note : 기독교 입문층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인지층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 친밀층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그리스도 중심층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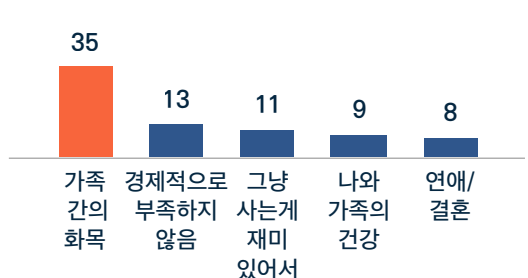
● 생활의 만족, '가족 간의 화목'이 제일 중요해!

- 생활에 불만족한다는 기독교 청년들은 그 이유로 '경제력 부족'(43%)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학업/취업'(17%), '그냥 사는게 재미없어서'(10%) 등을 응답했다.
- 생활에 만족한다는 기독교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만족 이유로 꼽은 것은 '가족 간의 화목'(35%)이었다. 불만족 이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제력'은 13%로 2위였다.
- 생활 불만족 이유로 '경제력'이 결정적 요인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그렇지 않았다. 즉 '경제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위에 가족 간의 화목함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그림] 생활 불만족 이유(상위 5위)



[그림] 생활 만족 이유(상위 5위)



*자료 출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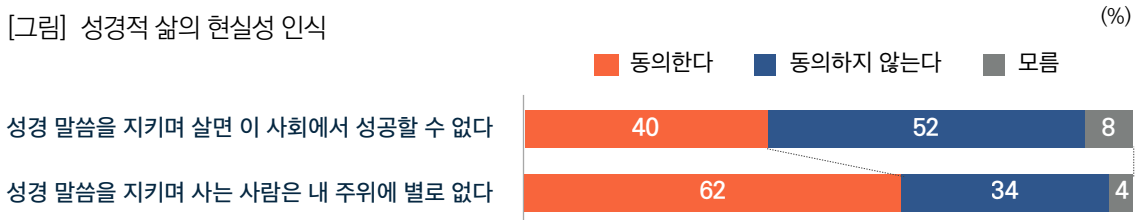
5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성공할 수 없다’, ‘동의한다’ 40% < ‘동의하지 않는다’ 52%

-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한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40%가 동의하고 52%가 동의하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 조사 결과는 기독교 청년들의 절반이 넘는 52%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기독교 청년들이 성경 말씀 대로 사는 것에 대해 성공과 연관지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62%, ‘동의하지 않는다’ 34%로 동의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기독교 청년 3명 중 1명의 눈에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림] 성경적 삶의 현실성 인식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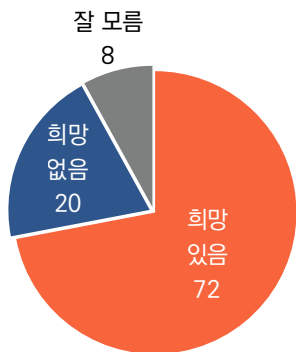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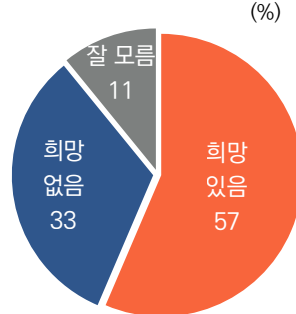
기독교 청년, ‘내 미래는 희망이 있다’ 72%

- 기독교 청년들은 본인의 미래에 대해 72%가 ‘희망이 있다’고 했고, 20%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응답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밝게 전망하고 있다.
- 그런데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7%만 ‘희망이 있다’고 했고, 33%가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기독교 청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나는 다를 거야’라는 자의식 혹은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섞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본인 미래에 대한 인식 (%)



[그림] 한국 사회 미래 전망 (%)



*자료 출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 27 (전국,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시사점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이 힘있다.” 민태원이 1929년에 쓴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의 서두이다. 이 수필은 교과서에도 실려서 청춘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도 표현되듯이 청년의 특징은 ‘열정’, ‘생동감’ 등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지금 청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에서 자기 능력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서 스스로 불행한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다(5쪽).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 1962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120달러, 세계 평균 481달러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1/4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5년 후인 1986년에는 우리나라가 2,820달러, 세계평균은 2,827달러로 같아졌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 27,600달러, 세계평균 10,299달러로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높아졌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버렸는데, 그만큼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커졌다. 남들보다 더 위에서 그들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돈’을 추구하게 만든 것이다.

‘돈’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사회! 하나님은 그 사회의 위험성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말씀 속에서 경고하셨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속이며 괴롭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재벌 회장 가족이 피고용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은 뉴스가 화제가 된 적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학대받은 사람이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돈’ 때문이었다. 온갖 범죄도 결국은 ‘돈’ 때문에 일어나며, 상당수의 관계의 파괴도 ‘돈’때문에 일어나고, ‘돈’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자주 보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의미있는 발견이 하나 있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기독교 청년들은 ‘동의한다’ 40%, ‘동의하지 않는다’ 5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보스럽고 미련하여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통념인데, 절반이 넘는 기독교 청년들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이 매우 넓게 퍼져있다는 점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청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 청년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청년들로 인해 사회가 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물질주의, 기복신앙에 빠져 청년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교회와 기독교 청년들은 사회 속에서 힘을 잃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상황에서, 모든 교회마다 다음세대 교육, 운영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다음세대 걱정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교회내 청년 한사람을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실제적인 사역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내가 만약에... 가정으로 엇본 국민 생각'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연말 '내가 만약에... 가정으로 옛본 국민 생각'이라는 리포트를 제공했는데, 일상의 삶에서 한국인의 다양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조사개요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110명, 웹조사, 2020.1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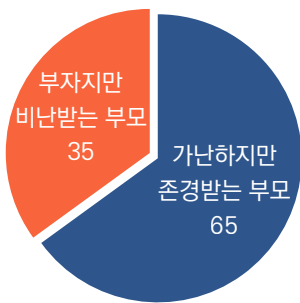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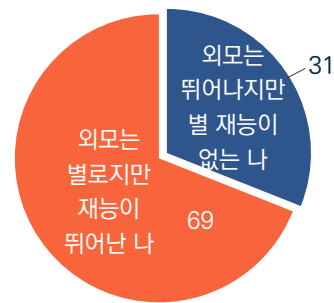
내가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65%) > '부자지만 비난받는 부모'(35%)

- 이 질문을 통해 물질을 우선하느냐 또는 명예(평판)를 우선하느냐를 엿볼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를 65%가 응답했다. 이는 '부자지만 비난받는 부모'(35%)보다 훨씬 높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남에게 비난받는 부모를 원하지는 않았다.
- 또한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외모'와 '재능' 중에서 '외모'(31%)보다는 '재능'(69%)이 뛰어난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른바 '외모' 지상주의를 선호하지는 않았다.

[그림] 내가 만약에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한다면, 어떤 부모? (%)



[그림]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외모와 재능 중 어느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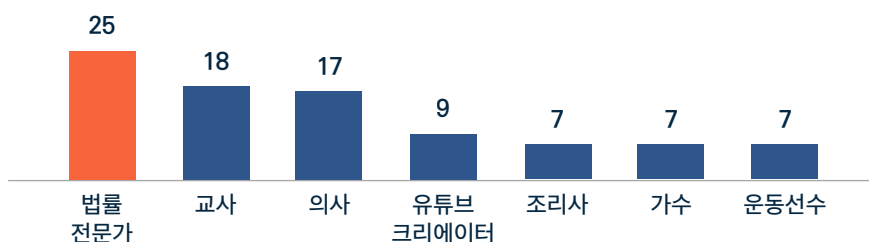
2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법률 전문가' 1위

- 만약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다면, 우리 국민은 '법률 전문가'를 25%로 가장 높게 선택했고, 다음으로 '교사' 18%, '의사' 17%, '유튜브 크리에이터' 9%, '조리사', '가수', '운동선수' 각각 7%로 응답했다.
-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과 '안정성' 그리고 '높은 수입'을 직업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 선택하고 싶은 직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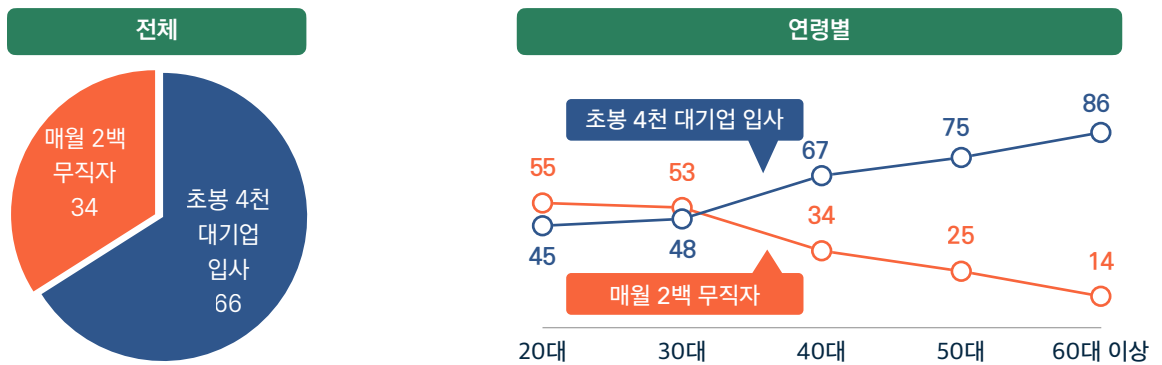
3



내가 만약에 20살이라면, '초봉 4천만 원 대기업 입사'(66%) > '매월 2백만 원 무직자' (34%)

- 자신이 취직을 앞둔 20대라고 가정하고 '초봉 4천 대기업 입사'와 '매월 2백 무직자'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질문했는데, 초봉 4천 대기업 입사 선호도(66%)가 훨씬 높아, 수입은 있지만 노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고연봉의 대기업 화이트칼라를 더 선호했다.
- 다른 연령에 비해 젊은층(20-30대)에서는 '매월 2백에 무직자'로 살겠다는 인식이 '초봉 4천 대기업 입사'보다 더 높는데, 이는 평생 직장 개념이 축소되고 직장에서의 치열한 압박감을 피하는 젊은이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내가 만약에 20대라면, 직업 선택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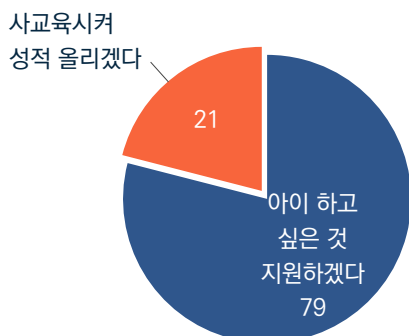
4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장년이라면, '아이가 하고 싶은 것 지원'(79%) > '사교육으로 성적 올림'(21%)

- 만약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장년이라면 아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질문했는데,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하겠다' 79%로, '사교육시켜 성적 올리겠다' 21%보다 훨씬 높게 응답했다.
- 이는 우리 국민의 5명 중 4명 정도가 아이 교육과 장래에 있어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하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현재 고등학생 사교육 비율(50%.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을 볼 때 현실과 괴리는 있으나, 인식 측면에서는 자녀 의견에 따르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림] 내가 만약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 교육과 장래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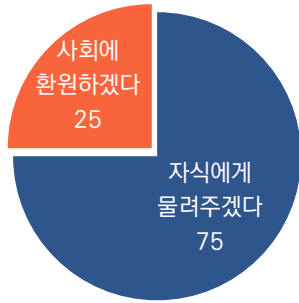
5



내가 만약에 재산이 있는 노년이라면, ‘자식에게’(75%) > ‘사회 환원’(25%)

- 만약 재산이 있는 노년일 때 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자식에게 물려주겠다’(75%)가 ‘사회 환원하겠다’(25%)보다 훨씬 높다.
- 그래도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인식이 국민 4명 중 1명 가량이나 돼 주목된다.

[그림] 내가 만약에 노년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 사용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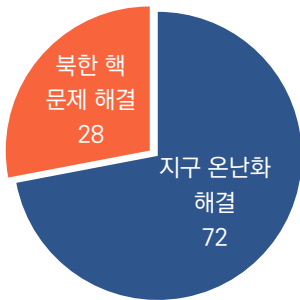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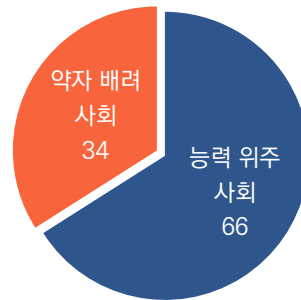
내가 만약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72%) > ‘북한 핵 문제 해결’(28%)

- 만약 무한한 능력이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지구 온난화’와 ‘북한 핵 문제’ 중에서 72%가 ‘지구 온난화 해결’을 꼽아 ‘북한 핵 문제’(28%)보다 훨씬 높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무한 능력으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능력 위주 사회’(66%)를 ‘약자 배려 사회’(34%)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응답했는데,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다는 능력에 따라 보상과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능력을 통해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내가 만약에 무한 능력이 있다면, 북한 핵과 지구 온난화 중 어느 것을 해결? (%)



[그림] 내가 만약 무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회를 구성?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나
1
9

[코로나 이후 국민의 일상생활 변화 조사\(언론진흥재단\)](#)

미디어오늘_2021.02.03.

[코로나19 일반국민 인식변화, 서울대 유명순교수팀](#)

연합뉴스_2021.02.01.

[보건복지부 조사, 시민 80% ‘거리 두기, 효과적’…절반 ‘공정’](#)

경향신문_2021.02.02.

[외출도 못해, 손주도 못봐…노년층 ‘코로나 블루’ 짊어졌다](#)

중앙일보_2021.02.01.

[18세이하 확진자, 전체의 9%…12세이하는 가족 전파 > 학교 전파](#)

연합뉴스_2021.02.02.

[코로나 한파가 월급봉투도 ‘강타’...직장인 3명 중 1명 “올해 연봉 동결”](#)

뉴시스_2021.01.29.

사회
일
반

[준엄사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조선일보_2021.01.31.

[방통위, 2020년도 이용행태조사 결과](#)

경향신문_2021.02.02.

[한국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매일경제_2021.02.02.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교실선 암전하던 애도 온라인선 욕설](#)

한국일보_2021.02.02.

[교육 여론조사 ; 국민 절반 “한국교육 비전·일관성 없어”](#)

에듀프레스_2021.01.29.

[‘개천용’ 미국선 느는데, 한국선 사라진다](#)

조선일보_2021.02.04.

[착한 소비의 힘… 초등생 편지에 우유 빨대 없었다](#)

조선일보_2021.02.0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지난해 직원 둔 자영업자 16만5000명 감소...1인 자영업자 9만명 증가](#)

디지털타임즈_2021.02.01.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모바일쇼핑은 첫 100조 돌파](#)

연합뉴스_2020.02.03.

[전국 상위 20% 집값 평균 10억 돌파, 1년새 29% 상승](#)

동아일보_2020.02.04.

[작년 자동차 내수 판매 첫 190만대 돌파...세계 12위→9위](#)

연합뉴스_2020.02.04.

트렌드

[주식으로 돈 벌어 40대 은퇴...2030 '파이어족' 급증](#)

중앙일보_2021.02.01

[코로나 시대, 명품시장 활황, 1600만원 롤렉스가 품절!](#)

중앙일보_2021.02.02.

[코로나 1년...소비가 달라졌다!, 자전거 +92%, 숙박해소제 -23%](#)

중앙일보_2021.01.30.

기타

[2020 국방백서 발표, 일본을 '동반자'서 '이웃국가'](#)

경향신문_2021.02.02

[미국의 인종주의](#)

시사인_2021.01.29.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밀양남부교회, 연동교회, 포항제일교회 | 아드폰테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학을 건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여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82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 제 82호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